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핵심은 의료산업이 돼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LA 할리우드 장로병원 벤치마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의료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박5일간 미국을 방문중인 김지사는 현지시간 4월17일 LA에 도착해 가장 먼저 LA 할리우드 장로병원 시설에 다녀왔다. 대통령 방미중 특별수행원으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곧바로 경기도 대표단과 미서부 서비스산업 벤치마킹에 나선 것.

김 지사는 장로병원의 병상과 줄기세포연구소, 클리닉센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정책을 꼼꼼히 체크했다.

LA 할리우드 장로병원은 한국의 차병원그룹이 2005년 1월 기존 병원을 인수해 인수 100일 만에 한인 내원자 400% 증가와 200만 달러 흑자를 낸 한국인 운영 최초 종합 병원이다. 방문 내원자수는 연 3만 명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최대로 의료진 600명, 임직원 1,300명, 병상 434실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차병원 차병원그룹 회장, 벨스 LA 할리우드 장로병원장으로부터 차별화 서비스 정책현황을 브리핑 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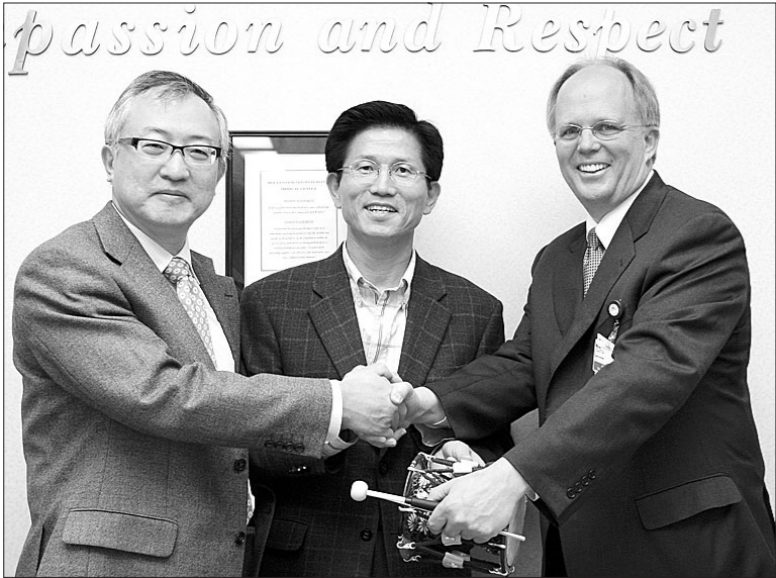
특히 호텔식 병실과 DVD대여, 선택, 사진인화, 사우나 시설을 설치해 서비스의 고급화와 더불어 불임시술과 산모태아 연구, 줄기세포 연구 등 높은 기술력으로 미 서부 한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김 지사는 “제조업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산업이다. 한국인의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 향상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들여야 한다”며 “외국인들도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수준에서 인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핵심상품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사는 “대통령께서도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가장 걱정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취업을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걱정하셨다”며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본다. 아직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을만한 관광지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후 관광산업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치아와 성형치료 등 의료분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병원시설에 이어 샌디에고로 이동해 테마파크 세월드와 보트제작소를 현장시찰하며 아이디어 수집에 나섰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월17일(현지시간) 미국 LA의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방문해 차병원 차병원 그룹회장(왼쪽), 제프 벨스 장로병원장(오른쪽)과 병원시설의 현황을 설명 받은 후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천 전곡중학교 장애 체험 실시

전곡중학교(교장 김홍길)는 4월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족화(입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 그리기 장애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가 소중한 친구임을 깨닫게 하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먼저 아침방송을 통하여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의미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하고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알아보기’ 등 게시물을 보름간 게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왔다.

이날 방과후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족화 그리기와 장애인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퀴즈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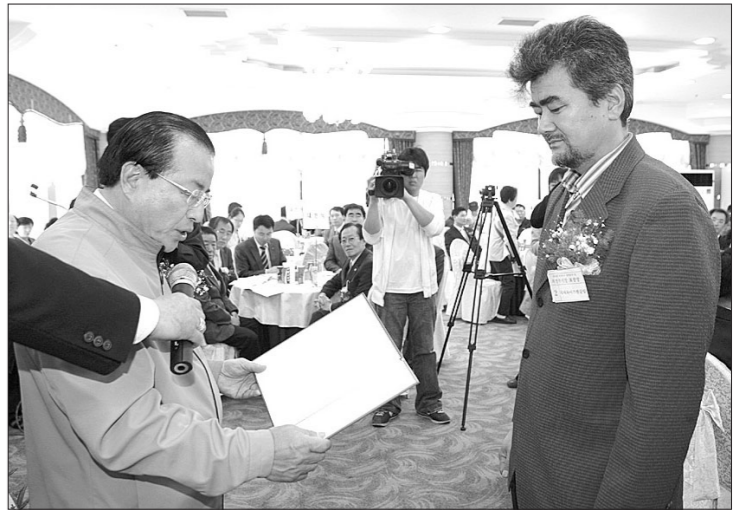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의정부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재활증진대회를 4월18일 600여명의 장애인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낙원부에서 가졌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재활증진대회가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20가정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10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예술인 초청 공연 등이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365일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올해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김



의정부시는 제28회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재활증진대회를 4월18일 600여명의 장애인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낙원부에서 가졌다.

종환(49세, 장암동 거주)씨는 “날씨도 화창하고 오랜만에 회원들을 만나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조례를 제정하여 다음달 공포예정

로 있으며, 특히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중증장애인콜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요산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동두천이담봉사회 50여명 회원 참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동두천이담봉사회(회장 류효정)는 산불예방을 위해 4월13일 오전10시부터 경기의 소요산 소요산 매표소에서 적십자 봉사원 5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휴일을 맞아 소요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홍보용 비닐팩 및 일회용 반창고 등을 배부하면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적십자 이담봉사회는 매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다음달부터 의정부시 중앙로 차없는 거리 운영

의정부시 5월 가족의 달 맞아 중앙로 차량통제 쉽터 제공

의정부시는 다음달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의정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역 동부광장 앞 오거리 중앙로(1.2km, 왕복4차로)를 차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하고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불거리 제공과 또 하나의 쉼터, 거리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밝혔다.

시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다음달 3일 중앙로 차량을 통제후 오후6시 문화가 산책을 시작으로 10일 국제음악극 축제, 17일 작은음악 큰 음악회, 24일 통기타 가수 초청 공연, 31일 대학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6일은 전통문화 축제, 7월 즐기는 비 축제, 8월 썸머 축제, 9월 한가위 축제, 10월 시민의날 축제, 11월 김장 축제, 12월 크리스마스 축제 등 매월 테마별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 부스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알뜰장터도 개설한다.

한편 시는 다양한 불거리 공연과 시민 참여 거리행사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토요일 유인구 및 업종별 매출액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화의 거리 운영시 현재와 비교해 도출된 장단점 등 개별 상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활성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시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10시까지 중앙로 농협입구 - 구 남배공사까지 500m구간과 중앙로 이면도로에 대하여 차량을 통제한다.

또한 역전 및 파발교차로에서 중앙로 진출입을 금지하고 오거리 신호체계로 사거리 신호체계로 변경 운영하여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한 뒤 교통영향 등을 평가해 의정부역-파발교차로간 중앙로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르면 올해 말 중앙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등 서울 인사동 거리와 같은 시민.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 시는 중앙로 일대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위치한 미군기지인 캠프 홀링워터와 동부광장 일대 1만7천여평 부지에 조성될 공원과 연계해 전국적인 명소가 만들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는 지난해 중앙로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42개 전신주와 배전선로를 매설했으며 주변 221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하거나 교체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시의 중심인 중앙로를 전면 폐쇄해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중앙로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의 여가 공간 확보와 젊음이 넘치는 거리등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테마별 축제는 물론 상가별 알뜰장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중앙로를 끼고 형성된 제일시장 등 재래시장 상권이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다음달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의정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역 동부광장 앞 오거리 중앙로(1.2km, 왕복4차로)를 차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하고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불거리 제공과 또 하나의 쉼터, 거리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밝혔다.

제3기 BIO 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1세기 양주농업 리더 육성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양주농업을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농업으로 실용·명품화하고 21세기 양주농업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3기 BIO 농업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4월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진 농업대학 입학식에는 임춘빈 양주시장, 농업인단체장, 농업대학 졸업생 임원 등 내빈과 가족, 입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BIO농업대학은 국내대학 및 농업관련기관(단체) 우수전문가를 초빙해 1년간의 교육과

점을 편성, 매주4시간씩 이론과 현장 학습을 위주로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마케팅과는 매주 화요일, 전통음식과는 매주 목요일 교육이 진행되며, 교과목은 농업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농산물유통교육, 관광농업 등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현장학습교육으로 편성되었고, 강사진은 유명대학 교수 및 전문농업경영인 등을 초빙하여 농업인 소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농업기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입학식에서 마이산 햇살드림 농장 김영삼 대표는 “내가 선택한 농업의 길이란 주제 특강을 2시간 가량하여 입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임춘빈 BIO농업대학 학장은 “이론과 현장중심의 체험학습이 병행 추진되는 맞춤형교육과정인 본 대학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는 향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시 교육점수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양주농업을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농업으로 실용·명품화하고 21세기 양주농업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3기 BIO 농업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Wonderful Ceramics!

2008경기국제도자페어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Fair 2008

2008. 4. 25(금) ~ 5. 5(월) 고양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April 25 - May 5, 2008 Hall 3, KINTEX
www.wocef.com

주최 | 경기도 Hosted by GyeongGi-Do 주관 |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Organized by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고령시, 김해시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Goyang City / KINTEX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467-020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69-1 San 69-1, Gwang-dong, Icheon-si, Gyeonggi-do 467-020 Korea Tel +82-31-645-0542, 0530, 0531